

산자부, 국제환경규제 컨퍼런스 10월23일 개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제환경규제 대응 실무교육을 제공해 기업담당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국제환경규제 컨퍼런스Ⅱ를 10월 23-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개최한다.

국내기업들은 국제환경규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체제를 준비하고 있으나, 특히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실무경험이 없고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자금이 부족해 지속적인 대응 시스템 구비와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국제환경규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제환경규제 특성상, 부품기업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이 앞으로 국제환경규제에 적발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또 적발시 셋트기업에까지 전부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컨퍼런스는 환경규제관련 표준규격 시험방법과 시료채취방법등 교육, 중소기업 담당자를 위한 WEEE/RoHS 실무교육, 셋트기업의 부품기업에 대한 EuP 요구사항, EU 전문가의 EuP 추진동향 설명, REACH 초보 및 전문가교육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0/18>